

의문문의 화용론적 특성 (1)

박 중 갑

<차 례>

- | | |
|-----------------|----------------------|
| 1. 서 론 | 4. ‘-제?’형 의문문과 부가의문문 |
| 2. 설명의문문과 관정의문문 | 5. 결 론 |
| 3. 부정의문문과 긍정의문문 | |

1. 서 론

본고는 의문문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한 화용론적¹⁾ 특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장경희(1982)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예문 (1)과 같은 상황에서는 (나)의 1의 ㄴ, (나) 2의 ㄱ은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바르 Chomsky (1977:40)의 이론바 ‘화용상의 능력(pragmatic competence)’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 (가):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고 있음)

(나) 1: ㄱ. 너 공부하니?

ㄴ. *²⁾너 공부 안하니?

(나) 2: ㄱ. *너 자니?

ㄴ. 안자니?

언어는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이므로 언어자체의 본질구명에 있어서 그러한 기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화용론이 언어 뿐만 아니라, 그 주

-
- 1) 화용론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Chomsky (1977:40)과 같이, 문장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배경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신념과 같은 비언어적인 정보에 의해 운용되는 규칙을 다루는 것으로 본다.
- 2) *표시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잘못 선택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다.

변의 상황(situation)에 대한 설명에 주력하는 것은, 상황이 없이는 언어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실재하는 사실인 언어를 규정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다(김종택, 1982 : 10).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국어의문문 가운데서 설명의문문(Wh-Questions)과 판정의문문(Yes-No Questions),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 그리고 부가의문문 등이 이해되고 쓰이는 데 따른 규칙을 화자 및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information)의 양(quantity), 화자의 질문태도, 공손(politeness)의 문제, 원만한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체계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

2.1. 앞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 중 어느 순간이든 화자는 청자의 의식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자는 청자가 의식하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 가정해서 자신의 재료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이기등, 1983 : 255). 이러한 점은 의문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설명의문문이 쓰이는 데도 일정한 양의 정보,³⁾ 즉, 전제⁴⁾(presupposition)가 필요하다.

(2) ㄱ. 누가 영화를 때렸니?

[+의문사]

ㄴ. 철수는 무엇을 잡았니?

[+의문사]

(3) ㄱ. x가 영화를 때렸다.

ㄴ. 철수가 x를 잡았다.

(2)의 설명의문문은 각각 (3)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3), 4) Katz-Postal(1964) 이후, 설명의문문의 의문사를 부정사구로 바꾼 표현을 설명의문문의 전제로 보고 있다(장석진, 1975 : 193). 이는 장석진(1975 : 194)에서 말한 ‘질문자의 가정(assumption)’, ‘화용상의 전제(pragmatic presupposition)’, Kiefer(1980 : 101)의 ‘배경적인 가정(background assumption)’ 등과도 같은 것인데, 본고에서는 ‘전제’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정보’는 이러한 전제 외에 의문의 내용이 되는 가정, 추측, 그러한 가정이나 추측 등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재료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전제는 화자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청자 또한 이러한 전제의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 때, 화자는, 자신의 그러한 가정과는 달리, 청자가 그러한 전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때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4)와 같은 질문을 되받게 될 것이다.

(4) ㄱ. 영희가 누군한테 왔었니?

[－의문사]⁵⁾

ㄴ. 철수가 무엇을 잡았니?

[－의문사]

그리고 만일 화자의 전제가 잘못된 것일 경우 화자는 상대방으로부터 (5)와 같은 교정응답(이익환, 1980 : 152)을 얻게 될 것이다.

(5) ㄱ. 영희는 아무한테도 맞지 않았어.

ㄴ. 철수는 아무 것도 잡지 못했어.

따라서 (2)에 대한 (3)의 전제는, 엄격히 말하면, 화자만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화자는 (2)와 같은 설명의문문을 발화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게 되지만 또한 (3)과 같은 정보를 화자 자신이 갖고 있음을 겉으로 드러내게 된다.

판정의문문은 우선 화자가 가진 정보의 양적인 면에서 설명의문문과 다르다. 논의의 편의상 (2)를 (6)으로 다시 인용하고 (2)와 동일한 성분에 촛점이 놓인 (7)과 비교하여 논의한다(밑줄은 촛점이 놓인 성분을 가리킨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6) ㄱ. 누가 영희를 때렸니?

ㄴ. 철수가 무엇을 잡았니?

(7) ㄱ. 영수가 영희를 때렸니?

ㄴ. 철수가 토끼를 잡았니?

화자가 (3)의 내용만 전제로 가지고 있고, 그 x 가 누군지 전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설령의문문인 (6)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때 이 x 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들의 집합 즉, 가능응답의 집합은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6), (7)은 동일한 성분에 촛점을 두고 있으므로 각각 (9), (10)과 같은 분열의문문(Cleft Questions)

5) 앞으로는 [+의문사]일 경우에는 특별한 표지를 붙이지 않는다.

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7)도 (6)과 마찬가지로 (3)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A = \{a_1, a_2, a_3, \dots, a_n\}$$

(9) ㄱ. 영화를 때린 것이 누구니?

ㄴ. 철수가 잡은 것이 무엇이니?

(10) ㄱ. 영화를 때린 것이 영수니?

ㄴ. 철수가 잡은 것이 토끼니?

그런데 (7)은 (6)과는 달리 집합 A 의 원소 중에서 하나(영수, 토끼)를 선택하여 그 가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7)의 화자는 (3)의 정보 외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과 (7)의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정리하면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7)의 화자는 “ x 가 영화를 때렸다” “철수가 x 를 잡았다”라는 정보 외에 또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어, x 가 각각 ‘영수’, ‘토끼’라는 가정⁶⁾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가정을 의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7)의 화자가 ‘영수’, ‘토끼’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가정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11) ㄱ. (6) : 전제

ㄴ. (7) : 전제 + α

따라서, 판정의문문은 설명의문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노출시키게 된다. 이는 (11) ㄴ에서 α 로 표시된 것인데, 결국 판정의문문을 택한 화자는 자신이 α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때의 α 는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판정의문문이 그러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Kiefer(1980)는 몇몇 유형의 판정의문문들은 설명의문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본고에서 논의한 (7), (10)과 같은 경우를 ‘촛점 성분이 있는 판정의문문(Focussed Yes-No Questions)’이라 하여 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의문문은 화자가 몇 가지 이유⁷⁾로 설명의문문을 대신하여 발화한 것으로 설명의문문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 아니오’의 응답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설명의문문의 대답을 필요로 한다는

6) 이 책의 ‘가정’은 주 3), 4)에서 밝힌 ‘전제’와 구분된다. 즉, 전제는 의문의 대상이 아니고, 의문을 성립시켜 주는 배경적인 정보이지만, 가정은 의문의 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7) Kiefer(1980 : 104~5)를 참고할 것.

것이다. 즉, (7)의 의문문의 경우에는 ‘예’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없으나,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경우에는 ‘아니오’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명의문문 (6)의 대답으로 볼 수 있는 “ x 가 때렸습니다.”, “ x 를 잡았습니다.”라는 식의 대답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과 같은 판정의문문을 (6)과 같은 설명의문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6)과 (7)이 동일한 전제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Katz(1972 : 207~9)에서는 판정의문문을 선언의문문의 한 특수한 형태로 보고 판정의문문의 긍정·부정의문문과 선언의문문은 동일한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고 있다. 물론 Bolinger(1978)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상론은 피하나 하여간 판정의문문과 선언의문문 사이에는 어떤 대응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7)에 대응되는 선언의문문은 긍정과 부정을 선언요소로 가지고 있는 (12)의 형태가 아니고 (13)의 형태이다.

(12) $Q \S (p) \vee Q \S (\sim p)$

(13) $Q \S (a_1) \vee Q \S (a_2) \vee Q \S (a_3) \vee \dots \vee Q \S (a_n)$

∴ $Q \S$: 판정의문문의 Question Operator

$\vee$: OR

$\sim$: Negation

$\{a_1, a_2, a_3, \dots, a_n\}$: 설명의문문의 가능응답

p : 의문문의 명제내용

Kiefer(1980)에서는 설명의문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판정의문문을 촛점성분의 유무로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촛점보다 전제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4), (15)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14) (상황) : (영희는 자전거를 팔기로 했음)

ㄱ. (철수) : 너 자전거 팔았니?

ㄴ. (영희) : (ㄱ) 그래.

(ㄴ) 아니야.

(15) (상황) : (철수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영희를 만났음)

ㄱ. (철수) : 너 자전거 팔았니?

ㄴ. (영희) : (ㄱ) 그래.

(ㄴ) (*)아니야.

(ㄷ) 아니야, 빌려줬어.

(14)는 “자전거를 팔았느냐／안 팔았느냐”라는 식의 물음으로 단순한 ‘예, 아니오’의 응답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14)의 $\neg$ 은 설명의문문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이는 Kiefer(1980)의 견해처럼 촛점성분의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제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즉, (15)의 $\neg$ 은 철수가 영희가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에 발화한 경우이므로 “너가 자전거를 x 하다”라는 전제를 가진 것으로 되어, 다음 (16)과 같은 설명의문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14) $\neg$ 은 단지 긍정과 부정이 이접된 명제를 전제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설명의문문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6) 너 자전거 어떻게 했니?

그리고, Katz-Postal(1964)이 말한대로, 설명의문의 전제는 WHQ (Wh-Questions)의 의문사를 부정사구로 바꾼 표현이기 때문에(장석진, 1975: 193), 설명의문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정의문문은 그렇지 못한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전제를 가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16)의 가능응답은 $\left\{ \begin{matrix} a_1, & a_2, & \dots & a_n \\ \vdots & \vdots & & \vdots \end{matrix} \right\}$ 와 같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15) $\neg$ 은 그러한 가능응답 가운데서 하나, 즉, “(자전거를) 팔았다”를 선택하여 묻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화자는 “(자전거를) 팔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4) $\neg$ 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선언요소 중 하나(긍정)를 택하여 묻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것에 대응되는 선언의문문이 (15) $\neg$ 과는 달리 (12)와 동일한 형태인 (17)과 같이 될 것이다. 즉, (14)는 (17)의 구조에서 긍정($Q\$(p)$)이 표면화된 것인데,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선언요소 중 긍정을 선택하여 표면화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가정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18) $\neg$, $\neg$ 이 특별히 어떤 가정(너가 숙제했다. 너가 식사했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물론 (19)와 같이 부정의 선언요소가 선택된 경우는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될 것이다.

(17) $Q\$(p) \vee Q\$(\sim p)$

$\therefore p$: 의문문의 명제내용

(18) $\neg$. 너 숙제 했니? ($\leftarrow$ 너 숙제 했니／안했니?)

ㄴ. 너 식사 했니? (←너 식사 했니/안했니?)

(19) ㄱ. 너 숙제 안했니? (→부정의 가정)

ㄴ. 너 식사 안했니? (→부정의 가정)

Bolinger(1978), Givon(1979), 장경희(1982) 등에서는, 긍정의문문은, 긍정의 가정을, 부정의문문은 부정의 가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3.1, 3.2)에서 상론되지만, 긍정의문문은 긍정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문 (14)에서 철수의 질문은 철수가 “영희가 자전거를 팔았다”라는 긍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이다. 철수는 영희가 자전거를 팔기로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철수의 정보는 (14) ㄱ의 질문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배경적인 정보의 역할만 하고 있지, (15) ㄱ의 가정처럼 의문의 대상으로서의 가정은 될 수 없다. 즉, 철수는 영희가 자전거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영희가 자전거를 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팔았다/안았다’라는 두 개의 긍정과 부정의 선언요소 중에서 긍정형을 선택하여 묻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15) ㄱ은 철수가 영희가 자전거를 팔 계획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팔았느냐/안 팔았느냐’라는 식의 질문은 할 수 없고, 자전거를 늘 타고 다니던 영희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영희가 자전거를 x 하다” 즉, 자전거를 “팔았다/빌려 줬다/도둑맞았다……”라는 식의 전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 “팔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여 묻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긍정의문문은 긍정의 가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의문문도 일률적으로 부정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화자의 질문 태도가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설명의문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판정의문문은(긍정형일 경우) 화자가 긍정의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 쓰이고, 설명의문문의 기능을 할 수 없는 판정의문문(긍정형일 경우)은 화자가 아무런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쓰임을 알 수 있다. 판정의문문은 서실적 상황에서 사실로 추측되는 명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의문문이라고 한 장경희(1982 : 112)의 주장은 전자의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화자가 가진 정보의 양을 기준으로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의 화용론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외문문은 의문문의 성립 자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정보(전제, 배경적인 가정)만 필요로 할 뿐 의문문의 개상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은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정의문문(여기서 긍정형)에는 설명외문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그것에 대응되는 설명외문문과 동일한 내용의 전제를 가지고 있고, 설명외문문의 가능한 응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가부를 묻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에 의해 긍정적인 가정을 가지게 된 경우이고, 후자는 아무런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2.2 설명외문문과 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제약을 원만한 대화 진행과 공손(Politeness)의 문제에서 다룰 수도 있다. Kiefer(1980: 104~5)는 관정의문문의 의미구조는 설명외문문의 그것보다 간단하다고 했다(물론 여기서의 관정의문문은 설명외문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설명외문문 Q 의 가능한 응답을 (20) ㄱ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면, Q 는 n 개의 관정의문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이는 (20) ㄴ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어느 한 관정의문문이라도 (20) ㄴ의 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데, 비해 어떤 관정의문문도 설명외문문으로 나누어질 수는 없으므로 관정의문문보다 설명외문문이 더 복잡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 ㄱ. $A = \{a_1, a_2, a_3, \dots, a_n\}$

ㄴ. $Q = Q \S (a_1) \& Q \S (a_2) \& Q \S (a_3) \& \dots \& Q \S (a_n)$

따라서, 설명외문문은 청자에게 n 개의 원소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작업을 부과하는 것이 되고, 관정의문문은 그러한 작업을 화자가 미리하여 그 가부만 묻고 있는 경우가 되므로 전자보다 후자는 청자의 작업량을 줄이는 결과가 됨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관정의문문 자체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n 개의 가능응답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데 기여한 가정)를 노출시키는 경우이므로, 화자는 청자에게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21) 교수: (가방을 들고 연구실에서 나옴)

학생: ㄱ. 퇴근 하십니까?

(*) ㄴ. 어디 가십니까?

(22) 교수: (시내 중심가를 걸어감)

학생 : ㄱ. 불 일 보셨습니까?

(*) ㄴ. 무엇하시러 나오셨습니까?

예를 들어, 위의 (21), (22)와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학생의 두번째 (ㄴ) 질문이 모두 좀 불공손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이는 학생의 두 번째 질문은 설명의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많은 작업량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 받을 때, 설명의문문이 계속되면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23) 학생 : 이 문제는 어떻게 풀니까?

교사 : ? ? 어려운데.....

(24) 학생 :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됩니까?

교사 :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하는 경우, (24)는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을 학생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선택하여 그 가부를 물음으로써 상대방의 작업량을 줄일 수 있게 되어 (23)보다 훨씬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Kiefer(1980 : 105)에서도 보다 단순한 의문문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고, 판정의문문으로 묻는 것이 가능하면 설명의문문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화의 양(quantity)에 관한 수칙(maxim)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손의 기준에서 보면, 판정의문문이 설명의문문보다 덜 공손하게 생각되어 원만한 대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Kiefer(1980)의 가설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대화를 가정해 보자.

(25) 교수 : 자네 기말 시험 쳤나?

학생 : ㄱ. 집안 일 때문에 못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ㄴ. 과제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25)에서 학생의 질문 중 ㄱ은 설명의문문 형식이므로, 가능한 응답에 대한 화자 자신의 어떤 가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나, ㄴ은 화자 스스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그 가부를 물고 있어 Kiefer(1980)의 가설대로 하면 이것이 대화 진행에 있어 더 바람직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불공손하게 들릴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가정(판단)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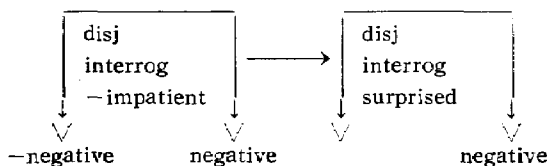
대방에게 미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응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

3.1 자연 언어의 모든 문장에는 긍정과 부정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그 대립의 결과적 양상에 있어 의문문은 명령문이나 평서문과는 사뭇 다르다 (장경희, 1982 : 89~90). 즉, 평서문의 긍정과 부정은 (26)에서 보듯이 그 진위의 내용이 정반대이고, 명령문의 긍정과 부정은 (27)에서 보듯이 하나는 행동을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데 비해 다른 하나는 행동의 수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8)과 같이 의문문의 긍정과 부정은 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26) ㄱ. 철수가 웃었다.
 ㄴ. 철수가 웃지 않았다.
 (27) ㄱ. 웃어라.
 ㄴ. 웃지 마라.
 (28) ㄱ. 철수가 웃었니?
 ㄴ. 철수가 안웃었니?

국어 의문문의 이러한 문제에 관한 연구에는 장석진(1974, 1975), 서정목(1979), 장경희(1980) 등이 있다. 그리고,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Chafe(1970), Lyons(1977), Givon(1979)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들 모두 긍정의문문의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Chafe(1970 : 322~3)에서는, 부정의문문은 화자가 처음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정적임을 알리는 새로운 증거를 얻게 되었을 때 ‘의의(surprised)’라는 생각과 함께 묻는 물음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관정의문문의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인 특성을 연구한 기존 업적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긍정의문문은 긍정의 가정을, 부정의문문은 부정의 가정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차 밝혀 나가겠지만, 의문문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은 의문문의 화자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질문 태도에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긍정의문문이 반드시 긍정의 가정을 함축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정의문문도 반드시 부정의 가정을 함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긍정의 가정을 함축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 때의 긍정형과 부정형은 화자의 질문태도에 관련을 맺고 있다.

(29) 누가 유리를 깬니?

(30) ㄱ. 철수가 깬니?

ㄴ. 철수가 안 깬니?

(30)의 두 의문문을 (29)의 설명의문문과 비교하여 보자. 긍정의문문인 (30) ㄱ은 앞 (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x 가 유리를 깬다.”라는 전제를 (29)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29)의 가능한 응답 가운데서 ‘철수’를 선택하여 묻고 있으므로 “철수가 유리를 깬다.”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가정을 함축하고 있다. 단일 부정의문문인 (30) ㄴ이 (29)의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30) ㄴ도 “ x 가 유리를 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의문의 초점도 ‘안깬다’에 있지 않고 ‘철수’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리가 깨어졌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의 두 의문문을 분열의문문으로 나타내면 (31)과 같은데, 이 때 특히 (30) ㄴ이 (32)와 같은 형태의 의미가 아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자는 모두 “유리를 깬 사람이 있다.” 즉, “ x 가 유리를 깨었

(31) ㄱ. 유리를 깬 사람이 철수니?

ㄴ. 유리를 깬 사람이 철수 아니니?

(32) 유리를 안 깬 사람이 철수니?

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러한 ‘ x ’에 모두 ‘철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양자의 차이는 (33)과 같은 의미구조에서 전자는 긍정형울, 후자는 부정형을 선택하여 표면화하고 있는 데 있다.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철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철수가 유리를 깬다.”라는 긍정적인 가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전자는 그러한 가정을 긍정형으로 묻고 있고 후자는 부정형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33) 유리를 깨 사람이 철수(이나/아니나?)

앞에서 밝힌 Chafe(1970)의 설명대로 하면, (30) ㄴ은, 화자가 처음에는 철수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상반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의아한 느낌과 함께 묻고 있는 경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증거가 있고 없음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질문태도에 달린 문제이다.⁸⁾ 긍정의 가정을 긍정의문문으로 묻는 것은 질문의 적극적 태도이고, 긍정의 가정을 부정의문문으로 묻는 것은 질문의 소극적 태도이며 조심스런 태도로 볼 수 있다.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는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만일 (30) ㄴ이 (29)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면 여기에는 어떤 부정적인 증거의 있고 없음은 따질 수가 없는데, 그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가정을 소극적인 조심스런 태도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물론 (34)와 같이 부정적인 증거가 나타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또한 서정복(1979: 127)의 주장처럼 화자의 가정이 부정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고, 현존하는 부정적인 증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인 가정을 긍정의문문으로 묻지 못하고 부정의문문을 통하여 소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 순이: (영수에게 깨진 유리값을 물어내라고 하고 있음)

영희: 철수가 유리를 안 깨니?

(35)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답에 자신이 없으면 대개 부정의문문 형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와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 (가): 이 게 뭐지?

(나): ㄴ. 돌 아이가?⁹⁾

ㄴ. 그것 쇠 아니니?

8) 성광수(1980)에서도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차이를 질문태도의 차이로 보고 있다.

9) 동남방언에서 쓰이는 것으로, 중앙어의 “돌 아니니?”에 대응된다. 억양에 따라 “돌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돌이다.”라는 자신의 가정을 조심스런 태도로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후자다. 자세한 것은 박종갑(1982) ㄱ을 참고할 것.

앞 (2.1)에서 설명의문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판정의문문이 있다는 Kiefer(1980)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30)의 두 의문문에서도 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철수가 유리를 깨었느냐/안깨었느냐?”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고 증국적으로는 유리를 깨 사람이나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따라서 설명의문문 (29)와 동일한 양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설명의문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판정의문문들은 그러한 설명의문문과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설명의문문의 가능한 응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문의 긍정형과 부정형에 관계없이 모두 긍정의 가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양자의 차이는 질문태도의 적극성과 소극성에 있다.

서정목(1979)에서는 (37)나 (39)나 같은 유형의 부정의문문은 화자가 “넌 학생(순이 동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부정쪽으로 치우치고 있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장경희(1982 : 103~109)에서는 긍정의문문은 긍정의 가정을, 부정의문문은 부정의 가정을 묻는다고 하고, (37)나와 같은 유형이 긍정적 가정을 함축하게 되는 것은, 의문문의 부정은 화자 자신이 긍정의 내용을 기대하는 곳에서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묻는 질문이므로, 화자의 서상적 가정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부정의문문은 언제나 부정의 가정을 묻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부정의문문은 전제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 가정을 묻는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 가정을 묻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36), (38)의 설명의문문과의 관계에서 보면 설명의문문의 가능한 응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묻고 있는 경우이므로 (37), (39)의 모든 의문문은 긍정의 가정을 갖고 있으며 그 차이는 질문태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6) 넌 뭇하는 사람이니?

(37) 나. 너 학생이니?

나. 너 학생 아니니?

(38) 너 누구니?

(39) 나. 너 순이 동생이가?

나. 너 순이 동생 아이가?

3.2 앞 (2.1)에서 판정의문문에는 전제의 내용에 따라, 설명의문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고, 그 차이를 선언의문문과의 관계에서 구분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설명의문문의 가능한 응답을 $\{a_1, a_2, a_3, \dots, a_n\}$ 라 하면, 전자의 유형에 대응되는 선언의문문은 (40)의 형태이고 후자에 대응되는 선언의문문은 (41)과 같이 외문문의 긍정명제와 부정명제가 선언요소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앞에서 논의한 (12), (13)을 다시 인용한다).

$$(40) Q \S (a_1) \setminus Q \S (a_2) \setminus Q \S (a_3) \setminus \dots \setminus Q \S (a_n)$$

$$(41) Q \S (p) \setminus Q \S (\sim p)$$

그런데, 대응되는 선언의문문이 (41)과 같은 형태가 되는 판정의문문의 경우에는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특성이 좀 다르다. 서정복(1979: 121)의 예문을 인용하여 논의를 계속한다.

$$(42) \begin{array}{l} \text{ㄱ. 너(가) 신문(을) 안 샀나?} \\ \text{ㄴ. 너(가) 밥(을) 안 못나?} \end{array} \quad \begin{array}{l} \text{:: 숫자는 억양의 높낮이 표시} \\ \text{1: 낮음} \quad 2: \text{중간} \quad 3: \text{높음} \end{array}$$

(42)는 모두 ‘샀나/안 샀나?’, ‘못나/안 못나?’라는 식의 물음으로, 대응되는 선언의문문은 (41)과 같은 형태인 (43)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긍정형이 표면화된다면 (44)와 같은 긍정의문문이 될 것이고 부정형이 표면화된다면 (42)가 될 것이다.

$$(43) \text{ㄱ. 너 신문 샀나/너 신문 안 샀나?}$$

$$\text{ㄴ. 니 밥 못나/니 밥 안 못나?}$$

$$(44) \text{ㄱ. 니 신문 샀나?}$$

$$\text{ㄴ. 니 밥 못나?}$$

서정복(1979: 121)에서는 (42) ㄱ이 “니가 신문을 안 샀다.” 또는 “니가 신문을 사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 부정적이 가정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고 그 이유를 의무의 축점이 서술어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의문문인 (44)도 그 상황으로 보아 신문을 사야 될 입장이거나, 매일 습관적으로 신문을 사 온 경우에 쓰인 것이다. 그러한 상황, 즉, 화·청자 사이의 공통적인 화제가 될 수 있는 준비없이 갑자기 그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4)에서 ‘너’, ‘나’,

‘신문’ 등은 이미 구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의 초점은 (42)와 마찬가지로 서술어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42)가 부정적 가정을 함축하고 있는 데 대한 서정묵(1979)의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너가 신문을 안 샀다.”라는 내용은 하나의 가정으로서 질문의 대상이지 전제가 될 수는 없다.

긍정과 부정의 선언요소 중 긍정형이 선택되어 표면화되는 경우는 화자가 어떤 긍정 또는 부정의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이다.

(45) 가. 너 밥먹었니? (←너 밥 먹었니/안 먹었니?)

나. 너 공부 많이 했니? (←너 공부 많이 했니/안 했니?)

다. 너 숙제 다 했니? (←너 숙제 다 했니/안 했니?)

(45)는 ‘식사를 했는지/안했는지?’, ‘공부를 다 했는지/안했는지?’, ‘숙제를 다 했는지/안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긍정 또는 부정의 가정이 없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긍정형이 표면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비해, 부정형이 표면화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바꾸어 말하면, 긍정과 부정의 선언요소 중 긍정형이 표면화되는 데는 별 다른 정보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정형이 표면화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가 화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6)의 부정의문문 등은 상대방이 ‘식사, 공부, 숙제’ 등을 안한 것 같은 조짐이나, 상황적인 증거 등의 정보를 화자가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된다.

(46) 가. 너 밥 안먹었니?

나. 너 숙제 안했니?

다. 너 공부 안했니?

3.3 장경희(1982: 112)에서는 판정의문문을 서실적 상황과 서상적 상황에서 사실로 추측되는 명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의문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담화상황으로부터 긍정적 내용이 가정된 때에는 긍정의 문이 쓰이고 부정적 내용이 가정된 때에는 부정의문이 쓰인다는 흥미있는 관찰을 하고 있다.

(47) (가): (밤 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있음)

(나)1: 가. 공부하니?

나. *공부 안하니?

(나)2: ㄱ. *자니?

ㄴ. 안자니?

(48) ㄱ. 공부한다. (긍정적 가정)

ㄴ. 안 잔다. (부정적 가정)

그의 설명대로 하면, (47)의 상황에서는 (나)는 (가)의 행위에 대해 (48)과 같은 두 가지의 가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가정인 ‘공부한다’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긍정의문문인 (나)1의 ㄱ이 쓰이고, 부정적 가정인 ‘안잔다’에 대해 물을 때에는 (나)2의 ㄴ같은 부정의문문이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관찰만으로는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특질 구질 구명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의문문의 체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1과 (나)2의 의문문은 모두 ‘공부하느냐/안 하느냐?’, ‘잠을 자느냐/안 자느냐?’ 하는 것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1의 ㄱ은 (가)가 밤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있으므로 “너가 x하다.”라는 전제를 세워 놓고, “그 x가 공부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49) (나)와 같은 설명의문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나)1의 ㄱ에 대한 (가)의 응답이 부정일 때는 ‘아니오’만으로는 부족하고 (49)의 (나)와 같은 설명의문문에 필요한 (가)의 응답과 비슷한 내용이 보충된 (50) ㄷ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49) (나): 넌 뭇하니?

(가): 편지 쓰고 있는 중입니다.

(50) ㄱ. 예.

ㄴ. (*)아니오.

ㄷ. 아니오. 편지 씁니다.

따라서 (47)에서 (나)1의 ㄱ이 자연스러운 것은, (나)1의 ㄱ은 (49) (나)의 가능한 응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가부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선택에 따르는 정보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가)의 행위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1의 ㄴ과 (나)2의 ㄱ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안잔다’의 가정을 묻는 질문에 쓰일 수 없게 된다.

4. ‘-제?’ 형 의문문과 부가의문문

4.1 대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화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판단에 도움을 주게 되어 대화진행을 원활히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게 된다. 판정의문문 중의 ‘-지?’¹⁰⁾형과 ‘-제?’¹¹⁾형, 그리고 부가의문문의 ‘-아이가?’형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화용론적 특성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51) 누가 산에 불을 질렀니?

(52) ㄱ. 철수가 산에 불을 질렀니?

ㄴ. 철수가 산에 불을 안 질렀니?

(53) ㄱ. 철수가 산에 불을 질렀제?

ㄴ. 철수가 산에 불을 안 질렀제?

알 (2.1)에서 논의했듯이 (51)은 “x가 산에 불을 질렀다.”라는 전제만 가지고 있고 그러한 x가 누군지 전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쓰인다. 따라서 그러한 x가 누군지에 대한 상대방의 판단에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2) ㄱ은 화자가 (51)의 가능응답 가운데서 ‘철수’를 가정하여 물을 때 쓰이므로 화자 자신의 “철수가 산에 불을 질렀다.”라는 가정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키게 된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과 동시에 의문의 내용에 대한 화자 자신의 가정을 제시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신속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수도 있는 것이다.

(53) ㄱ도 (52)와 마찬가지로 “철수가 산에 불을 질렀다.”라는 사실에 대해 묻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52)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정을 묻고 있는 것인데 비하여, (53)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기 위하여 묻고 있는 것이다. 물론 (52)도 어떤 가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물음이기도 하나, (53)의 화자는 문제되고 있는 의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 (52)의 화자는 그러한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52)는 화자가 의문문을 통하여

10), 11) ‘-제?’ 형은 동남방언에서 쓰이는 것으로 중양어의 ‘-지?’에 대응되는 것인데, 본고에서는 ‘-제?’로 통일하여 쓴다. 양 유형의 통사론적 차이에 대해서는 최명옥(1976), 서정목(1979)을 참고할 것.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데 쓰이고, (53)은 화자가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대화전행상의 어떤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할 때 쓰이는 것이다.¹²⁾

(52)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긍정적인 가정을 노출시키는 하나, 자신의 가정에 대한 가부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응답을 한 쪽으로 유도하는 힘이 미약하다. 이런 점은 (52)에서는 그 형식이 긍정이 되든 부정이 되든 함축하는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서도 짐작될 수 있다. 즉, (52)에서는 긍정은 부정의 존재를, 부정은 긍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53)은 긍정 또는 부정이 화자의 가정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다. 화자가 부정 또는 긍정의 한 쪽으로 확신하고 있고 상대방 또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긍정과 부정은 (52)와는 다른 성격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54)의 예문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

(54) ㄱ. 철수가 나무를 심었나/안심었나?

ㄴ. *철수가 나무를 심었제/안심었제?

따라서, (53)은 화자가 자신의 확신을, 긍정 또는 부정의 형식 중에서 어느 하나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제’에 의해 물음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확신을 표면화시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응답을 한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정목(1979: 121)에서는 다음 (55)와 같은 예문을 들고, ‘—제?’와 ‘—나?’¹³⁾형의 차이를 논하고 있다.

(55) ㄱ. 니 신문을 안샀나?

ㄴ. 니 신문을 샀제?

그는 (55) ㄱ은 “너가 신문을 사기로 했다.”와 “너가 신문을 안샀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55) ㄴ은 “너가 신문을 샀다.”라는 사실만 전제하고 있어 양 유형은 전제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고 있다. 즉, (55) ㄱ에서는 “너가 신문을 사기로 했다.”라는 전제가 더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의문의 전제로 본다면, (55) ㄴ도 마찬가지로

12) 최명옥(1976: 156)에서도 ‘—제?’ 의문법에는 화자가 의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13) 중앙어의 ‘—니?’에 대응되는 동남방언의 의문법 어미.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5) ㄴ도 상대방이 신문을 사야 될 입장에 있거나, 신문을 습관적으로 사 왔거나, 또 신문을 사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비적인 상황의 준비도 없이 불쑥 그러한 말을 끄집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장경희(1982)에서는 ‘—니?’형은 담화장에서 주어진 가정을 묻는 ‘서실의문(叙實疑問)’으로, ‘—제?’형은 화자 자신의 믿음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서상적 가정을 묻는 ‘서상의문(叙想疑問)’으로 보고 있는데 본고의 논의와도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 유형의 화용론적 차이는 의문의 대상이 되는 가정 또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결국, 양자의 화용론적 차이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quality)과 화자의 질문 태도로 압축된다. 즉, 전자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응답선택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질문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신에 가깝고 상대방의 응답을 긍정과 부정 중 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질문태도를 노출하고 있다.

4.2 동남방언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가?’형 부가의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56) ㄱ. 철수가 산에 불을 질렀다^{1 3 2}아이가?

ㄴ. 철수가 산에 불을 질렀다^{1 2 1}아이가?

(57) ㄱ. 철수가 산에 불을 ^{1 1 3 2}안질렀나?¹⁴⁾

ㄴ. 철수가 산에 불을 ^{1 3 2 1}안질렀나?

(56)에서 보듯이 ‘—아이가?’형은 그 억양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뉠 수 있는데, (56) ㄴ은 상대방의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사의문(Rhetorical Questions)이므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57)의 부정의 문문도 억양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지는데 (57) ㄴ도 (56) 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사의문이다.¹⁵⁾ 그런데, (57)

14) (57) 예문의 정확한 억양에 대해서는 최명옥(1976 : 148)을 참고할 것.

15) 자세한 것은 박종갑(1982) ㄱ을 참고할 것.

그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해 왔듯이 촛점이 ‘철수’에 있으므로 긍정적 가정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56) 그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긍정적 가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행서술문 “철수가 산에 불을 질렀다.”는 보통의 서술문과는 달리 단언적인 진술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57) 그 가정이 부가의문문의 선행서술문으로 표면화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결국, (56) 그도 화자가 자신의 가정을 먼저 서술함으로써 상대방의 응답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질문태도를 가졌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57) 그에서는 화자의 가정이 숨어 있는데 비해, (56) 그에서는 그러한 가정이 선행서술문으로 발화됨으로써 상대방의 응답에 대한 유도력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선행서술문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 하나의 가정이 불과하기 때문에 앞 (4.1)에서 논의한 ‘—제?’ 정보다는 상대방의 응답 선택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다.

5. 결 론

지금까지 의문문의 몇 가지 유형의 화용론적 특성을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 질문태도, 원만한 대화진행, 공손의 문제 등을 기준으로 논의해 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의문문은 질문 자체를 가능하게 해 주는 배경적인 정보(전제)만 갖고 있고, 의문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정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 그렇게 보이거나 할 경우에 사용된다.

둘째, 관정의문문에는 설명의문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설명의문문의 가능응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가부를 묻고 있는 것이므로 화자가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정보(가정)를 갖게 된 경우에 쓰이고, 후자는 긍정의문문일 경우 그러한 가정과는 무관하게 쓰인다.

세째, 관정의문문은 그 의미구조가 설명의문문보다 간단하고 또 화자가 가진 정보를 노출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응답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작업량을 줄이게 되어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고 공손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관정의문문은 화자의 가정을 표면화함으로써 상대방의 응답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비예, 관정의문문에는, 전제의 내용에 따라, 설명의문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가)형, 후자를 (나)형으로 하여 화자가 가진 정보(가정)의 성격, 질문태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문의 역할	의문문의 형식	정보(가정)의 성격	질문태도
(가)	가 능	긍정의문문	긍정적 가정	적 극 적
		부정의문문	긍정적 가정	소 극 적
(나)	불 가 능	긍정의문문	가정없음	중 립 적
		부정의문문	부정적 가정	적 극 적

다섯째, ‘—니?’형 의문문과 ‘—제?’형 의문문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적인 문제와 질문태도에 의하여 그 화용론적 특성이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가정이거나 추측에 불과하나, 후자의 경우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확신에 가깝다. 질문태도에 있어서는 전자는 상대방의 응답선택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나, 후자는 상대방의 응답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태도이다.

여섯째, ‘—아이가?’형 부가의의문문도 화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을 선행 서술문으로 표면화시켜 상대방의 응답선택을 한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질문태도의 표현이다.

참 고 논 제

- 강신항(1978). “안동방언의 서술법과 의문법”, 언어학 3, 한국어언어학회.
 김영희(1975). “의문문의 이접적 특성”, 문법연구 2, 문법연구회.
 김종택(1982). 「국어화용론」, 형설출판사.
 나진석(1958). “의문형 어미고”, 한글 123, 한글학회.
 박종갑(1982 7). “의창지역어의 수사의문문에 관한 연구: 의비·화용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_____(1982 1). “의문문과 간접언어행위”, 영남어문학 9, 영남어문학회.
 서정복(1979). “경남방언의 의문법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어언어학회.
 성광수(1980). “국어 부가의문에 대하여”, 한글 168, 한글학회.
 안병희(1965). “후기 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건국대 학술지 6.

- 이익환(1980). “의문문의 의미”, 어학연구 16-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이현규(1978). “국어 물음법의 변천”, 한글 162, 한글학회.
- 장경희(1982). “국어 의문법의 긍정과 부정”, 국어학 11, 국어학회.
- 장석진(1973). “화의 생성적 연구”, 어학연구 9-2, 별권,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74). “보이나 안들리는 ‘너’와 ‘나’”, 어학연구 10-2,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75). “문답의 화용상”, 어학연구 11-2, 서울대 어학연구소.
- 최명옥(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 서남 경남방언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인문 사회과학) 15, 대한민국 학술원.
- 최창열(1978). “선언적 의문의 의미구조”, 언어 3-1, 한국어언어학회.
- 황병순(1980). “의문문의 특수성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7, 영남어문학회.
- Bolinger, D.(1978). “Yes-No Questions Are Not Alternative Questions,” in H. Hiz, ed., *Question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 Chafe, Wallace(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50, 이기동 편저 (1983), 언어와 인지, pp.254~83, 서울: 한신문화사.
- Chomsky, N.(1977).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New York: North-Holland.
- Gazdar, G.(197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Givon, T.(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Hiz, H. ed.(1978). *Question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 Katz, J.J.(1972). *Semantic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and Paul M. Postal(1964), *An Integrated Theory of Linguistic Description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Kiefer, F.(1980). “Yes-No Questions as Wh-Questions,” in J.R. Searle, F. Kiefer and M. Bierwisch, eds., *Speech Act Theory and Pragmatic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 Kiefer, F. ed.(1983). *Questions and Answer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 Levinson, S.C.(1983). *Pragmatics*,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2*, London: Cambridge Univ. Press.